



[라이프] 배송은 기본 취미·건기식도 OK 구독서비스 폭풍성장 너



Life

매일 아침 내 손안의 친구 메트로 창간 20년

노인일자리 만들기와 정보나눔의 길을 계속 가겠습니다.



“애도기간에 당연한 것” vs “경기 어려운데 과도한 제한”

?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태원 참사’ 지자체 휴업 권고

용산·영등포 등 음식점에 요청 자영업자·소상공인 불만 목소리 서울시 “추모 분위기 전달한 것”

2일 서울시가 ‘이태원 헬러원 데이’ 사고 관련 식품접객업소 안전관리 강화 요청’ 공문을 구청에 전달해 용산구, 강남구, 영등포구 등이 관내 음식점 등에 휴업 권고를 요청한 것을 두고 찬반 의견이 팽팽히 갈리고 있다. 이태원 참사 희생자를 추모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가게들에 휴업을 권한 게 온당한 조치라는 주장이 있는 반면, 요즘처럼 경기가 어려운 시기에 과도한 영업권 제한이라는 불만도 터져 나온다.

앞서 시는 지난달 30일 서울 용산·강남·영등포구 등에 ‘이태원 헬러원데이’ 사고 관련 식품접객업소 안전관리 강화 요청’ 공문을 보냈다. 이태원 사고와 관



지난달 31일 서울 용산구 이태원의 한 가게 앞에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11월 5일 애도 기간까지 휴점합니다’는 내용이 적힌 안내문이 붙어 있다. /김현정 기자

련해 추가 사고 예방과 사망자 애도 등을 위한 자발적 영업 중단과 특별 행사 자체를 권고하는 내용이였다.

지자체의 휴업 권고 조치에 대해 박모(50대) 씨는 “가게 문을 닫는 게 추모하는 건가. 이태원에 와서 얼마 안 되지만 한 그릇이라도 팔아주려고 했는데...”라며 “문 닫는 게 능사는 아니다”고 말했다.

박 씨는 “식당 문을 닫고 여는 건 본

인(가게 사장)들이 판단할 일이지 구청이나 시에서 영업 중단을 요구하는 건 말이 안 된다”며 “그런 식이라면 추모를 위해 나라 전체가 문을 닫아야 하는 거 아니냐”고 반문했다.

김모(72세) 씨는 “중요한 건 사태 수습이고 재발 방지인데 사고를 막겠다고 상인들이 가게 문을 닫게 하는 건 잘 이해가 안 간다”며 고개를 가로저었다.

김 씨는 “자치 센터에서 탁구수업을 하는데 11월 한 달간 시설을 전부 폐쇄한다고 연락이 왔다. 이게 무슨 놈의 필요 없는 행정인지, 그런 짓을 하려면 진작에 해야지 사람들의 활동만 제한하고 있다”고 화를 냈다.

이와 반대로 지자체가 식품접객업소에 내린 휴업 권고가 적당한 조치였다는 평가도 나왔다. 용산구 주민 A씨(60대)는 “이번 주말까지 가게들이 문을 닫고 이태원 참사에 대한 조의를 표하는 게 맞다”면서 “당장 지금부터 가게들이 영업을 한다고 해서 죽었던 이태원 상권이 살아나는 것도 아니다”고 말했다.

이태원에서 10년 넘게 거주 중인 B씨는 “사람들이 애도하는 시간을 충분히 갖지 않으면 이런 참사가 일어났다는 것을 금세 또 까먹는다”며 “차분히 고인을 추모하며 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잃지 않기 위해 어떤 노력이 필요한지 생각해 봐야 한다”고 호소했다.

반면 상인들은 불만이다. 소상공인·자영업자커뮤니티인 ‘아프니까사장이

다’에는 “자발적 영업 중단을 권고한다고 보건소에서 문자가 왔다. 강남이긴 하지만 이태원처럼 복잡복잡하지 않은데 영업을 쉬는 게 맞느냐”며 “저도 그냥 쉬고 싶지만 월세 내기 힘들어서 하루가 아쉽다”고 하소연하는 내용의 글이 올라왔다. 해당 게시글에는 “영업손실 보상해주는 것도 아니고 그냥 안타까워할 뿐이지 된 영업을 하지 말래요”, “남일이라고 쉽게 말하네요. 우리는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사는데” 등의 댓글이 달렸다.

서울시 관계자는 “영업 중단을 권고한 것이 강제한 게 아니므로 영업권 침해로 볼 수 없다”며 “모든 행정은 법과 조례에 따라 진행되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임의적으로 식품접객업소에 영업 중단 조치를 내릴 수 있는 처지가 아니고, 그럴 권한도 없다. 정부에서 11월 5일까지를 국가 애도 기간으로 정했고 시는 각 구청에 희생자 추모 분위기를 전달하려 한 것일 뿐이다”고 선을 그었다. /김현정 기자 hjk1@metroseoul.co.kr

‘10% 할인’ 서울사랑상품권 749억 추가 발행

강북·도봉 등 6개 자치구서 사용 가능

서울시는 오는 8일 오전 10시부터 6개 자치구(강북·도봉·마포·동작·서초·중구)에서 사용 가능한 서울사랑상품권을 749억원 규모로 발행한다고 2일 밝혔다.

지속적인 물가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의 가계 부담을 덜고, 소상공인 매출 증대에 도움을 주기 위한 것이라고 시는 설명했다.

이번에 발행하는 상품권은 서울페이

플러스를 포함해 5개 앱(▲서울Pay+ ▲신한SOL ▲티머니페이 ▲머니트리 ▲신한pLay)에서 10% 할인된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다. 1인당 구매 한도는 월 70만원이다. 총 200만원까지 보유할 수 있다. 상품권 선물하기는 보유 한도 내에서 자유로이 가능하다.

상품권은 구매일로부터 5년 이내(단, 도봉구 유효 기간 3년)에 발행 자치구 내 서울사랑상품권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다. 예컨대 ‘서울중구사랑상품권’

은 중구 내 가맹점에서만 쓸 수 있다.

구매한 상품권을 사용하지 않았다면 보유기간에 상관없이 전액 구매 취소(카드 취소, 환불 등)를 할 수 있다. 일부를 썼다면 60% 이상 소진한 경우에만 잔액 환불이 가능하다.

시는 12월 초에 서울 전역에서 사용할 수 있는 서울사랑상품권(광역)을 1000억원 규모로 추가 발행할 계획이다. 서울사랑상품권(광역)은 7% 할인된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다. /김현정 기자

디지털 포용문화 확산 위한 공모전 연다

서울디지털재단, ‘약자와의 동행’ 공유

서울디지털재단은 ‘서울시 디지털 약자와의 동행 사례’ 발굴을 위해 오는 17일까지 ‘2022 디지털 포용문화 확산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 공모전은 ‘약자와의 동행’이라는 시정 철학을 시민과 공유하기 위해 기획됐다. 서울시 생활권자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디지털 포용문화와 관련한 사례를 보여주는 체험수기나 영상물을 제출하면

된다. ‘체험수기’는 A4용지 2000~3500자, 글자크기 12포인트, 줄 간격 160%의 규격을 맞춰 디지털파일(hwp, hwp x)로 내면 된다. ‘영상물’은 1920*1080 이상의 사이즈 규격으로 만들면 된다. 유튜브 등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의 개인채널에 출품작을 업로드한 후 해당 URL을 참가신청서에 기입하면 된다.

공모접수는 마감일은 11월 17일이다. 참가 희망자는 서울디지털재단 누리집 공모문을 확인한 뒤 구글폼으로 신청하면 된다. /김현정 기자

경기도 특사경, 폐기물 먹이 주는 개 농장 단속

58개소 대상 불법행위 집중 단속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은 11월 7일부터 18일까지 음식물류 폐기물 먹이 주는 개 농장 58개소를 대상으로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으로 2019년 7월부터 양돈농장 내 음식물류 폐기물 반입이 금지됨에 따라 개 농장으로 음식점, 군부대, 학교 등의 음식물류 폐기물이 몰리는 만큼 환경오염과 가축전염

병 발생 우려를 차단하기 위해 이번 단속을 추진했다고 설명했다.

주요 단속내용은 ▲음식물류 폐기물 불법투기 또는 매립하는 행위 ▲무허가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업 ▲미신고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 행위 ▲동물 학대 행위 금지 위반 등이다.

동물농장에서 신고 없이 음식물류 폐기물을 동물의 먹이로 사용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경기=안성기 기자 ask9990@

서울시 자율주행 안전교육 시행

서울시는 국토교통부, 경찰청, 도로교통공단, 교통안전공단, 서울기술연구원 등과 ‘자율주행 교통안전교육과정’을 개발하고, 3일 청계천 자율주행 버스 시험운전자들을 대상으로 첫 교육을 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에 개발된 ‘자율주행 안전교육과정’은 ▲자율차 기술 및 미래교통 변화 ▲자율차 탑승객을 위한 친절서비스 ▲도로교통법 등 관련 법령의 이해 등의 프로그램으로 구성됐다. /김현정 기자

오늘의 날씨

해돋이 / 06:59 | 해질 / 17:32

11월 3일 (木) 음력 : 10월 10일

수도권 날씨 7 ~ 12°C

운동 지수, 빨래 지수, 세차 지수, 외출 지수

지역별 날씨: 연천 4/11, 동두천 4/11, 가평 3/12, 파주 3/12, 서울 7/12, 양평 5/12, 용인 7/12, 인천 8/12, 수원 7/12, 평택 5/13, 백령도 9/10

·자료제공 : Kweather 케이웨더(주) www.kweather.co.kr



▲日기시다 “北 탄도미사일 발사, 용인 못해”...NSC 소집
▲덴마크 총선 여당 승리, 프레데릭센 현 총리 유임 확실 /사진 뉴스스

▲美 식품기업 3분기 호실적...“인플레이션 핑계로 과도한 가격 인상” 비판
▲아마존, ‘시총 1조달러’ 붕괴...2020년 4월 이후 처음



▲영화 E.T. 속 외계인 모형 경매에...낙찰가 300만 달러 예상 /사진 뉴스스
▲NYT “BTS 공연에도 1300명 경찰 배치...이태원엔 137명만” 비판

버스타비 TV와 함께하는 메트로 뉴스